



◁현 총무원장사에서 총무원장 선출 둘러싸고 벌어진 98년 종단사태 모습.



◁올해말 완공될 조계종 새 청사 조감도. 조계종은 새 청사 시대와 더불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조계종 변화없인 한국불교 미래없다

'조계종이 망해야 불교가 산다.' 98,99년 종권다툼으로 야기된 종단 폭력사태를 보면서 불자들은 이렇게 자조하며 조계종에 등을 돌렸다.

그러나 2003년 오늘, 조계종은 분명 달라져 있다. 하지만 이는 아수라장과도 같았던 당시와의 단순 비교일 뿐이다. 아직도 분란의 소지는 잠재돼 있고, 수행풍토는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은 미미할 뿐이다.

시대는 변했다. 조계종도 변화해야 한다. 만생명의 귀의처가 돼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바로 그 기회의 출발점이다. 조계종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2회에 걸쳐 그 방향을 진단해 본다.

글 쓰는 순서

-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 ①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조계종, 거듭나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대방을 쫓거나 무차별적 금전 살포와 같은 고질적 병폐는 사라졌다. 문종간의 눈에 띄는 다툼도 없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외친 법장 스님에게 4년간의 미래가 맡겨졌다.

법장스님의 당선은 법장스님 스스로가 밝혔듯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승가가 본래 청정을 회복하고 불교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사부대중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불교 미래의 갈림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구태를 반복하면 조계종은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시대흐름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낙오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이다. 한

국불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의 변화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조계종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 위상과 시대적 소명

조계종은 94년 개혁종단 이후 많은 개혁과제를 이뤄냈다. 현재의 조계종이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해야 산다'는 절박함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

위의 유효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98년에는 순천 선암사를 차지하려는 조계종과 이를 막으려는 태고종 간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조계종이 지나치게 '젓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상승 도박을 벌여온 스님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승가 정화'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기가 쉬웠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심과 민심은 조계종에 등을 돌렸고, 불교계는 지도력 부재 속에 세속화의 길을 걸으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말았다.

●불교는 만생명의 '귀의처·의지처'

조계종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을 만드는 일'이다. 이 말에는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우선 조계종은 사회의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종교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기능은 오히려 질타를 받는다면 종교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받는 승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무너진 계율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무소유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권위주의적 청산과 개혁을 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사찰의 재정투명화를 이루어야 한다. 분규와 갈등으로 얼룩진 구습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개혁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조계종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국민들 고통 어루만져주는 의지처로 승가상 정립·무소유정신 회복 갈등청산·제도개혁 안착시켜야

만 94년 이후 지금까지 종단이 불자들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변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다. 그동안 불자와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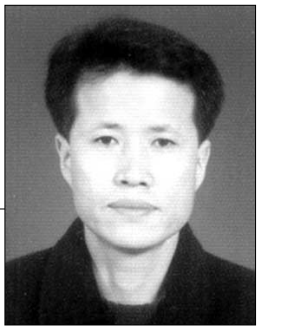
△96년에는 승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신도회가 양분됐고, 해인총림의 내부 갈등으로 방장 해임스님이 사퇴하면서 승가위상에 큰 손상을 입었다. 또 △97년에는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으로 1년 내내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는 당시 종정이었던 월하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종정 직

조계종에 대한 비난은 정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다. △2000년에는 조계사 신협을 비롯해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잇달아 공금 횡령 및 유용사건이 터졌고, △2001년에는 해인사 대불 조성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불교의 '비불교적 관행'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해인사 수좌들이 실상사에서 집기를 훼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 불교계는 또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떨어뜨려야 했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신응균
경북련 희망학교장



희망학교에 사는 이유

노숙자 부모됨에 고개 떨근 아이들 마음놓고 놀고 먹고 공부하게 하자

요즘, 나는 함께 할 실무자 면접에 사과가 되어 버렸다. NGO현장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이 여러모로 녹록치 않다보니 같이 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희망학교를 찾아온 구직자들은 언제나 표정이 생뚱맞다. '여기가 학교 맞아' 이들의 얼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내게 반말도 모자라 가벼운 욕지거리도 뱉어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런 되먹지 못한...'이라며 생각할 행동을, 아이들은 스스로를 생각한다. 사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니, 아이들은 따라 배웠을 테고,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야 그리 타박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색함을 지울 수 없는 모양이다.

지난 97년 불어 다친 IMF 경제위기가 서민들의 삶을 이리저리 옥보일 때, 경북련은 노숙자들과 함께 하는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참 기막혔던 것은 노숙자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하도에서, 서소문공원에서 거리잡을 청하는 노숙자 가족의 처량함. 부모야 못 배우고 돈 없어 거리에 나앉았으니 그렇다고 친다고 해도,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을까. 노숙자들 틈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있어야 할까.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지하도 한 칸에서 불안스러운 눈빛으로 주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치솟았다.

'도저히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희망학교를 열게 했다. 아이들이 돈 없이도 공부하고, 따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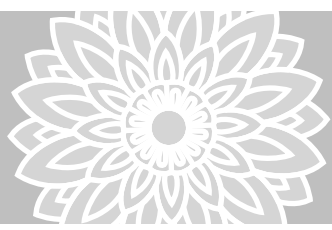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원을 모아 문을 열었던 것이다.

희망학교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은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고개가 늘 쳐진 아이들. 말을 붙여도 아이들은 묵묵부답하기 일수였다. 마음은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실직해술에 젖어 있지, 엄마는 일용직 봉제 공으로 일하는 처지다 보니 아이들에게 느는 것은 눈치밥이었다. 육살은 기본, 손찌검에 발길질이 다반사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 '무슨 고상한 교육이념이니 대안교육이니 하는 것은 때려치우자. 그냥 오고 싶어 하는 학교, 와서 마음 편히 아이답게 쉬고, 놀고,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아이들과 눈이 맞게 되고, 친하게 되자 반말과 가벼운 욕지거리가 오가게 됐다.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어제 신문에서 본 만화가 나를 울렸던 것은 노숙자 가족의 모습이었다. 대구 참사로 희생된 어린 영령이 하늘나라에서 엄마에게 보낸 짧은 글. 가슴을 파고들었다. 상식적으로 그 지하철에 '한다하는 종자들'은 타고 있지 않았을 테고, 소박한 꿈을 꾸는 이웃들만 무심히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가려진 목숨의 못 다한 말은 저 세상에도 울릴 것이다. 엄마 사랑한다 고.

이젠 제발 채 피지 못한 생명까지도 독질하는 욕심은 사라져야겠다. 지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친구할 물과 나무와 꽃들까지 미리 다 파헤치는 파렴치한 폭력도 이전 그만뒀어야 한다. 내가 이곳 희망학교에서 아이들과 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주 지 수봉 세민

총림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055)931-1001~3